2026년 고2 3월 학평

2026년 시행 고2 3월 학평 국어 문학 | 도깨비 잔치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3월 모의고사 문학 지문 중에 송기숙 작가의 「도깨비 잔치」를 복습하고 있는데요. 42번 문제가 좀 헷갈려요.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는 문제인데, 2번 선지가 왜 틀린 설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배짱과 집념'이 있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42번은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학모는 아버지의 친일 이력이 교육감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까 봐 윤주를 성호와 결혼시키려 하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따라서 김학모에 대해 성호의 긍정이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지. **성호는 김학모에 대해 뻔뻔한 야망을 지닌 인물임을 깨닫고 허탈해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란다.

아, 성호의 심리가 긍정이 아니라 허탈함과 비판에 가까웠군요! 그럼,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이 작품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을까요?

내신에서는 작품의 특징과 내용을 꼼꼼하게 묻는 경우가 많아. 우선 이 작품의 핵심은 **광복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세대 간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한다는 점이야. 작품의 주제와도 연결되니 꼭! 기억해 두렴.
그리고 또 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단다.

인물의 이마에 땀이 맺히거나 사색이 되는 표정을 통한 간접 제시 방법과 **성호가 느끼는 허탈한 기분을 서술자가 그대로 설명하는 직접 제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단배포금지

맞아. 또한 갈등의 양상과 인물에 대한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단다. 출세를 위해 가족의 아픔도 저버리고 친일파의 후손과 사돈을 맺으려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의 외적 갈등**, 그리고 윤주를 향한 애정과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사이에서 겪는 성호의 **내적 갈등**을 묻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김학모, 동곡 할아버지 등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해.

네. 그런데 제목의 '도깨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제목의 **'도깨비'는 세속적 가치에 매몰된 사람들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또, 동곡 할아버지의 정갈하고 고고한 기품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일제 강점기 및 광복과 관련된 다른 문학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하는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 부분들을 확실히 이해해 두면 다가올 내신 시험도 거뜬하게 풀어낼 수 있을 거야.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무단 배포 금지

2026년 고2 3월 학평

2026년 시행 고2 3월 학평 국어 문학 | 도깨비 잔치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성호의 할아버지**(일제 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인물 ①)는 친일 인사 카네야마에 의해 큰아들을 잃었지만, 카네야마의 아들 김학모는 해방 후 크게 출세한다. 그의 딸 윤주와 성호의 약혼식 전날 [할아버지가 성호의 집에 와서 약혼을 반대하고, **아버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혼식을 진행하려고 한다.**(교육계에서 출세하기 위해 성호와 윤주의 결혼을 진행하려 함. 출세를 위해 가족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는 인물. **아버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윤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호는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한다.**(성호는 윤주를 향한 애정과 과거를 잊고 현실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함.)]([ ]: **인물 간 혹은 인물 내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저러고 계시는데……."

"약혼식 올리러 가네 하고 외장치고* 갈 판이냐? 네 어머니만 집에 있으라 하고 우리만 가자."

성호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아버지를 건너다보았다. 그렇게 펄펄 뛰시는 할아버지를 속이겠다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험한 수모를 당하고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 김학모 씨도 이해할 수 없었다.

"**김 국장은 이번에 새집을 마련한 잔치 겸, 교육감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놓은 모양이다.**(친일 이력이 교육감이 되는 데 문제가 될까 봐 딸을 성호와 결혼시키려는 것을 알 수 있음. **김학모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식을 올리지 않으면 체면이 뭐가 되고, 또 소문은 어떻게 나겠냐?"

성호는 짐작이 가서 고개를 돌렸다.(아버지가 김학모에게 환심을 사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을 짐작함.)

"내일 열두 시 그대로다. 일찍 와서 오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아버지는 앞에 있는 커피를 한 모금에 마시고 일어섰다. 성호는 뚝배기로 개 패듯 했던 할아버지 고함 소리가 귓가에 살아왔다. 그런데 김학모 씨는 그런 **수모**(할아버지가 고함을 치며 모욕을 주었던 일)를 삼키고 식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카네야마 경부 아들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이겨 내며 살아온 배짱과 집념이 바로 그것이었던가, **성호는 허탈한 기분이었다.**(중심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됨.) 그러니까, **[삼일절 경축식장에서 쫓겨날 때**(김학모가 친일 집안이기 때문임.)도 여기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겸허하게 물러선 게 아니고, 두고 보자고 독기를 가다듬었을 것 같았다.] ([ ]: 할아버지에게 수모를 당했음에도 결혼을 진행시키는 김학모의 모습을 보고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한 그의 심리를 짐작함. 김학모를 뻔뻔하고, 야망이 있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음.)

성호는 병원으로 가며 어째야 할지 얼른 작정이 서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속이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게 끔찍스러웠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 처지는 뭐가 될 것인가?(성호의 내적 갈등) **성호는 밤새 잠을 설치고**(전전반측(輾轉反側). 전전불매(輾轉不寐). **성호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적절한 한자 성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서도 결단을 못한 채 집으로 갔다.

"오늘 무슨 일 없느냐?"

아침상을 물리고 나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얼결에 대답을 해 놓고도 **혹시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다.**(할아버지 몰래 약혼식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

"아무 일도 없어?"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다.(할아버지 몰래 약혼식에 가는 것이 들킬까 봐 걱정함. **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을**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성호는?"

"저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눈치를 챈 것이 아닐까 조마조마했다.

"그럼 잘됐다. 오늘이 **동곡 영감**(일제 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인물 ②) **탈상**(삼년상을 마침.)이다. 너희들은 초상 때도 못 갔으니, 오늘 나하고 같이 가자."

성호 아버지는 깜짝 놀라 성호를 돌아봤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이런 인사부터 제대로 차려야 한다. 그 양반은 너희들하고는 **친살붙이나 마찬가지다.**(동곡 영감을 가족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성호 할아버지) 작년에도 그만 일로 조문을 못 갔으니 말이 되느냐?"

성호 아버지는 멍청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빤히 보고 있었다. 거기까지는 하룻길이 빠듯했다.

"우리 동네 월촌 영감이 집에 내려올 때마다, 여기 와서 쓸 일이 있거든 자기 아들 차를 이용하라고 하도 그래 싸서 엊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차를 보내 준다고 했다. 그 차를 타고 가면 편하게 다녀올 것 같다."

성호 아버지 이마에는 땀이 보송보송 맺히고 있었다.(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라면 일이 조금……."

"무슨 일인데……."

할아버지가 못마땅한 듯 돌아봤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급한 판이라 그럴듯한 핑계가 얼른 잡히지 않는 것 같았다.

"친구는 담에 만나도 될 것 아니냐?"

할아버지 말에는 가벼운 **노기**(성난 얼굴빛. 화가 난 기색)가 서려 있었다.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신상 문제가 돼 놔서……."

성호는 아버지 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고개를 손으로 붙잡듯 모른 척 앉아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더듬더듬 말을 꺼냈다.

"아마, 성호도……."

"뭣이?"

할아버지가 발끈했다.

"아니, 약혼식 날 무슨 일이 그렇게 번거롭다는 게야?"

할아버지는 이미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다.('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성호 아버지와 성호가 약혼식에 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왔다.

"성호 너나 가자."

할아버지는 성호를 채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성호는 할아버지 위압에 못 이긴 척 할아버지 앞장을 섰다. 대문 밖에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호야, 나 좀 보자."

새파랗게 질린 어머니가 결사적인 표정으로 성호를 불렀다. **내외**(성호의 아버지와 어머니) 표정은 이미 그들이 할아버지 몰래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환하게 내비치고 있었다. 어머니가 성호를 한쪽으로 끌어 뭐라 귓속말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커엄!"(어머니가 성호에게 하려던 귓속말을 하지 못하게 됨.)

어머니가 찔끔했다. 성호는 그 커엄 소리에 이끌리듯 문이 열려 있는 차 속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할아버지가 올라앉으며 쾅 문을 닫았다.

내외는 멍청하게 서 있고 차는 부르릉 떠났다. 차가 시내를 달렸다. 성호 눈앞에 몇 사람 영상이 얽혔다. 시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는 물 찬 제비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성호는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았다.**(성호 또한 할아버지의 뜻에 따르게 됨.) **여태 어디 어두운 미로를 헤매다가 빠져나온 것 같았다.**(할아버지와의 동행을 통해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됨.)

등받이에 몸을 기댄 성호 눈앞에는 김길동이 이길동이들이 형님 동생 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잔칫상 앞에 **도깨비들**(세속적 가치에 매몰된 사람들을 빗댄 표현)처럼 모여들고 있을 광경이 어른거렸다. **그 요란스런 도깨비들 잔치판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을 자기 꼴을 상상해 봤다.**(세속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 끼어있었을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함.)

그 영상 위에 엉뚱한 영상이 하나 떠올랐다. 동곡 할아버지였다. **[이육사의 「청포도」**(조국 광복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 나그네처럼 **전설적인 분위기를 거느리고, 갈매나무같이 고고하고 정갈한 동곡 할아버지**(동곡 할아버지와 관련이 깊은 작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였다. 성호는 울컥 몰려드는 정감에 **조용히 옷깃을 여몄다.**(고고하고 정갈한 삶을 산 동곡 할아버지에 대한 성호의 마음이 드러나는 행동) **]**([ ]: 성호가 동곡 할아버지에게 보이고 있는 심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송기숙, **「도깨비 잔치」**(일제 강점기 및 광복과 관련된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외장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듯 혼자서 고래고래 떠들고.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소설

■ 성격: 비판적, 풍자적

■ 주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조리한 현실 비판과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올바른 삶의 방향 모색

■ 특징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조리한 세상을 풍자함.

▪ 갈등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 인물의 심리 변화 과정이 나타남.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광복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세대 간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성호 할아버지와 동곡 할아버지는 친일 관료 카네야마에 의해 각각 아들을 잃은 인물이다. 한편, 카네야마의 아들 김학모가 교육계에서 승승장구하는 것과 교장 승진을 위해 김학모에게 잘 보이려는 성호 아버지의 모습은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 사회와 출세를 위해 가족의 아픔도 저버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나타낸다. 김학모는 성호와 자신의 딸을 결혼시켜 친일 관료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약점을 지우려 한다. 성호는 그 의도를 눈치채고 이를 경계하지만, 윤주를 향한 애정과, 과거를 잊고 현실을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고민한다. 성호는 윤주를 향한 마음과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할아버지와의 동행을 통해 삶의 방향을 깨닫는다. 작가는 인물 간의 갈등과 성호의 인식 변화를 통해 '도깨비'로 가득 찬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 사회가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무단 배포 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무단 배포 금지

서지정보
저자 은미영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9739-0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6.04.06
가격 1,500원

ISBN 979-11-377-9739-0 (PDF)